

# 세법 상담·디지털 창구...진화하는 금융권

### 하나은행 광주지점, VIP고객 대상 부동산 세법 화상상담 운영 신협, 종이없는 디지털 창구 시스템 운영...스마트은 서비스도

은행 창구가 변화하고 있다. 각 은행들은 고객에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종이 없는 창구'와 화상상담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13일 하나은행 광주지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VIP고객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문가 화상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화상상담 대상은 하나VIP 클럽 회원으로, 광주지역 1억원 이상 거래 고객 780여명이다. 하나은행은 VIP고객이 전문가 상담을 필요로 하면 서울지역 전문가와 상담 날짜 등을 조율해준다. 상담 내용은 세무와 부동산, 법률 관련 등 다양하다. 박희연 하나은행 광주지점 PB(자산관

리)는 "고객에 화상상담방에 입장할 수 있는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송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문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부동산 세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대면 상담을 활용하려는 고객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신협)는 지난 10일부터 광주·전남 76개 조합 등 전국 곳곳에서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협 디지털 창구는 종이 대신 태블릿 PC 모니터를 이용하는 창구다. 조합원 가입,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 서비스가 모두 종이 없이 이뤄진다. 염성규 신협 IT경영부장은 "이전까

지 신협에서 금융거래를 신청할 때 종이 서류에 최소 8번에서 최대 25번까지 서명해야 했다"며 "디지털창구 시스템으로 중복 서명을 최소화해 편의성을 높이고 분실 우려는 낮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창구는 지난 6월부터 목포를 포함한 전국 13개 신협에서 시범 운영됐다. 신협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650개 신협에 단계적으로 디지털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창구 도입에 참여한 광주·전남 조합은 총 76개로, 이들은 총 86개의 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이달 초부터 태블릿PC로 지점 밖에서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신협 스마트은' 서비스도 시작했다. 스마트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원하는 장소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예금상품 가입, 입

출금·송금, 대출상담·상환, 금융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신규 조합원 가입도 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대전·충남지역 신협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 400여개 신협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오픈뱅킹 가입자 확대를 위해 오는 9월27일까지 경품 행사를 벌인다. 행사는 광주은행 오픈뱅킹에 처음 가입한 뒤 다른 은행 계좌에서 광주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주 333명씩 7주간 총 2331명에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3000원권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금융이 강화되면서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역량 제고를 내걸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위니아대우 "해외서 'WINIA'로 불러주세요"

### 해외 브랜드 변경·전략 발표 브랜드 홍보 위한 한류 공연

위니아대우는 자사 해외 브랜드를 'WINIA'(위니아)로 변경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해외 브랜드인 'WINIA'는 모기업인 대우위니아그룹의 종합가전 패밀리 브랜드다. 위니아대우는 WINIA의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하나의 메시지와 이미지로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DAEWOO'(대우) 브랜드로 해외에서 오래 영업해왔지만 지난해 5월 그룹사 통합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변경에 따라 WINIA 브랜드를 멕시코와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지역에서 페스티벌 오리엔탈 공연과 한류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브랜드 홍보 전시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지 마케팅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니아대우는 새 해외 브랜드 론칭을 맞아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에 나선다. 전략 지역의 소비자 친화적인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전의 본질인 편리함과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별한 가치를 담은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대표 가전 브랜드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니아대우는 지난 6월 30일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맺은 'DAEWOO' 상표의 사용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해외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아파트 정전 걱정 '뚝'...변압기 상태 실시간 제공

### 한전, 진단 솔루션 출시

한국전력은 아파트 변압기 상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고압 아파트 변압기 진단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구내 변압기에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통신 장치를 통해 변압기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고장 위험도와 과부하 등 변압기 상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가구당 매달 100원~150원 정도 부담하면, 아파트 주민과 관리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손쉽게 변압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전은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구내 정전을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 서울·경기도 지역 아파트 4개 단지에 시범운영을 거쳤다. 한전은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단 솔루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향후 이 서비스를 신축 아파트에 적용 확대하고, 다양한 전력설비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후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아파트 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대형마트, 광복절 연휴 먹거리 할인 행사

### 이마트, 먹거리 50% 할인

광복절 연휴를 맞아 먹거리 할인 행사가 대형 유통매장 위주로 열린다. 이마트는 오는 19일까지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우 전 품목은 행사카드 이용 시 30% 할인되고, 삼겹살·목심은 7대 브랜드에 한해 균일가전이 열린다. 한우와 삼겹살·목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소비 진작 캠페인 '대한민국 농산물'의 행사품목으로, 신세계포인트 카드 회원은 인증하면 20%의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다만 할인금액은 1인당 1만원으로 제한된다. 말복(15일)을 맞아서는 행사카드 사용 시 토종닭이 30% 저렴하게 판매되고, 씨

없는 수박(7~9kg 미만)도 2000원 할인된다. 인기 완구를 2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균일가전과 감·맹면 등을 대상으로 한 원플러스원(1+1) 행사도 열린다. 온라인 식품물 퍼미도 광복절 연휴를 집에서 보낼 사람들을 위해 '홈플러스 릴레이 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19일까지 한다.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보양식과 과일, 간식, 반찬 등이 최대 20% 할인되고, 10% 추가 할인쿠폰도 지급된다. (주)광주신세계는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영광에서 재배한 홍망고를 개당 2만4800원에, 전남지역 재배 무화과 1.5kg을 1만9800원에 내놓는다. 사과 시나노레드, 아오리 품종(각 3개 9800원·7800원)과 복숭아(1팩 1만9800원)도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8월 14일은 '택배없는 날'



### 쿠팡 등 새벽 배송은 안쉬어

택배업계가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위해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운영함에 따라 일부 택배사의 배송이 하루 중단된다. 13일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택배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금요일인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한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회사별 사정에 따라 참여하도록 한 만큼 모든 택배사가 다 쉬는 것은 아니다. 휴무하는 택배사는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 등 주로 대형 택배사들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다. 참여업체의 택배기사가 쉬는 것은 물론, 택배 분류나 집하, 택배 터미널 간 수송 차량 운영, 지역별 상하차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 업무 등이 모두 중단된다. 배송은 17일 월요일부터 재개되지만 14일 배송되지 못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물량이 일부 집중돼 평소보다 배송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택배회사들을 이용하지 않는 쿠팡의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의 셋배배송 등은 평소처럼 이뤄진다. 다만 이들 중 일부 서비스는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 편의점 택배 서비스는 14일에도 정상 운영되지만 보내는 경우 최소 2일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송중욱(오른쪽 두번째) 행장이 13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 DM테크를 찾아 임성태 대표로부터 침수피해 현황을 듣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침수피해 현장 방문·금융지원 모색

### 송중욱 은행장 피해상황 점검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13일 광주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송 행장이 광주시 북구 월출동 DM테크와 에이치디지테크(주)를 잇따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정밀기계 및 금형 제조업체로, 이번 호우로 집기와 원재료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광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광주·전남 호우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편성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3억원까지이다. 최대 1.0%포인트의 특별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특별금리우대 적용 및 기한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도 받는다. 송 행장은 지난해부터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지정된 대불산단을 방문하고,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체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집중 호우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지역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 업체들의 빠른 복구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행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어려울수록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며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